

9월 9일 금속노조 총파업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자랑스러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동지여러분!

현재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투쟁계획이나 실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멈출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 지고 그 사이에 재벌의 공격은 소리 소문 없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위협하는 노동개악을 언제든지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투쟁은 코로나19로 움짱달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기력하게 포기할 것이냐?” VS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투쟁하여 쟁취할 것이냐?”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제한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뛰어넘는 단결된 모습으로! 금속노조 깃발 아래 조직된 힘으로!

중앙·지부·지회의 임·단투 투쟁을 돌파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복수노조 강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시키고자 합니다.

재벌체제를 청산시켜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9월 2일(수) 2차 지부총파업은 잠정 연기하되, 9월 9일 금속노조 총파업은 합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9월 2일(수) 2차 지부총파업 투쟁은 잠정 연기하되, 9월 14일(월)~21일(월) 기간에, 사업장별 2시간 파업 후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전개한다.

[8월 24일(월) 대전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금속노조 전 사업장은 9월 9일(수) 4시간 이상 총파업을 실시한 후 지부별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지부별 결의대회는 더불어 민주당 지역도당 앞에서 개최한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유지 또는 3단계 격상될 경우 지부 결의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업장 결의대회 또는 퇴근파업도 고려한다.

[8월 25일(화) 금속노조 비상투쟁본부 결정사항]

9월 9일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반드시!

2020년 8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